

기조강연

석주명의 삶과 학문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과학기술부가 2003년 시작한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는 과학기술인 선정사업은 2016년까지 33명의 한국역사상 탁월한 과학기술자들을 골라냈다. 석주명은 스물다섯번째로 뽑혔고 2017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뽑은 32명의 과학기술유공자에도 들어갔다. 이병철의 성공적인 전기(1985, 2002), 과학사학자 문만용의 심층연구(1997)에 이어 명예의전당 헌정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석주명이 주목을 끌게 된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받은 제주인이라 자처했던 석주명이 2000년대에 들어와 제주학회 등에 의해 제주도에서 재평가 받는 것은 반갑기 짝이 없다.

석주명(石宙明, 1908-50)은 평양에서 태어나 송실고보를 다니다가 동맹휴학에 가담하고 송도고보로 옮겼다. 평양에서는 신극활동에 빠졌고 안익태와 함께 막간에 만들린을 켜기도 했다. 개성에서는 박연폭포 아래서 발성연습을 했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를 느낀 그는 음악을 단념하고 과학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석주명은 일본에 건너가 카고시마고등농림학교(鹿兒島高等農林學校) 농학과에 입학했고 이듬해박물과로 옮겨 졸업했다. 만일 그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귀국해 함흥 영생고보와 모교 송도고보에서 박물을 가르쳤다.

석주명은 카고시마때 은사 오카지마 긴지(岡嶋銀次)의 권고에 따라 조선나비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귀국후 교사로 일한 13년 동안 나비연구에 전력투구 했다. 그전에 한국나비의 연구는 외국학자들이 주로 했는데 많지않은 표본을 근거로 신중으로 단정한 경우가 많았다. 석주명은 온나라를 누비며 75만 표본을 조사해 통계처리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연구결과를 바로 잡았다. 그의 연구로 한국나비의 학명 가운데 같은 종이면서 이름이 다른 844개가 퇴출되었다. 초급대학 밖에 못 다닌 식민지 교사가 제국대학 교수들의 연구를 격파하자 석주명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석주명은 20대에 호카이도제국대학(北海道帝國大學),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서 초청발표를 했다. 일본 동물학자 시바타니 아츠히로(紫谷篤弘)가 1985년 석주명의 업적을 평가한 글을 발표했고, 이병철의 석주명전기를 읽은 다음 자기의 글을 수정한 글을 다시 써 발표한 것은 한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석주명의 연구 결과 한국 나비는 248종으로 정리되었다. 영국왕립아시아학회 조선지부(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는 1940년 그의 영문 단행본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한국 나비의 동종 이명목록>을 펴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인으로서의 파격이었다. 석주명은 갑자기 ‘나비박사’로 불리는 명사가 되었고 자비, 후원금 말고도 미국, 일본의 연구비를 받아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97편이 송도고보에 재직했던 11년 동안에 나왔다. 문만용(전북대한국과학문명사연구소)은 석주명의 나비분류학을 분석한 석사논문(1997)에서 석주명의 나비연구를 세 단계로 나눈다. 석주명은 단순한 목록작성에서 출발해 개체변이연구로 넘어 갔으며 분포연구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제인식, 방법론 정립, 종합으

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석주명이 분류학을 생물지리학으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인문학에 접목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석주명은 연구대상을 철저히 ‘조선’의 나비로 한정했다. 외국나비에 관한 논문도 썼지만 어디까지나 한국나비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적 생물학’도 성립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적 생물학은 자연과학을 넘어 인문학적 탐구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과 문집들에서 나비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내 분석한 역사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19세기에 평생 나비를 그린 남계우를 연구해 ‘조선사람의 곤충학’으로 소개했다.

해방후 석주명은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장으로 발탁되어 생물학자 조복성(관장), 정태현(식물학교실)과 함께 일했다. 대학에 있던 이민재, 강영선, 김창환에게도 인정을 받아 1947년에는 강영선의 주선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동물분류학 교수로 임용되기로 결정되었으나 웬일인지 이력서를 내지않아 무산되었다고 한다.

석주명은 일본서 공부할 때 교내 에스페란토연구회에 들어가 시게마츠 타츠이치로(重松達一郎) 교수에게 에스페란토를 배웠다. 그는 일본동물학회에서 발행하는 <動物學雜誌>에 논문요지를 에스페란토로 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 관철시킨 뒤 자기논문의 요지를 반드시 에스페란토로 썼다. 해방후에도 에스페란토운동에 적극 참여해 대학에서 강연과 강의를 했고 <國際語에스페란토教科書 附 小辭典> (1947)을 냈다. 석주명은 창씨개명을 끝내 하지 않은 민족주의자였으나 에스페란토운동을 통해 세계인(cosmopolitan)의 모습도 보여준 것이다.

석주명은 경성제대 부설 생약연구소에 근무하다가 1943년 제주시험장으로 전근하면서 자연과학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나비의 우리말 이름짓기에 열중하면서 빠져 들어간 석주명의 제주방언연구는 방종현, 이승녕 등 국어학자들의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그의 방언연구는 송도고보 시절부터였다고 하거니와 그가 보기에 나비와 방언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었다. 접류분포연구가 방언지리학으로 발전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석주명은 제주도의 독특한 방언을 들었을 때 곧 곤충과 연결시킬 수 있었고 나비류의 분포상태를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을 방언에도 응용해 연구했다. 그는 방언수집 때문에 예정보다 1년 더 제주에 머물렀다. 한국의 방언은 이미 일본학자들이 연구한 일이 있지만 한 지역의 방언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석주명이 처음이다.

해방 직전까지 제주에서 2년 근무하면서 석주명의 관심은 학문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제주에 관한 생물·언어·인구·지리·역사학적인 연구는 석주명을 ‘제주(도)학’의 선구자로 만들었다. 석주명은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제주도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았다. 그는 1945년 5월 개성생약연구소로 복귀한 다음 제주도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물 제주도총서는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방언>(1947),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 <제주도관계문헌집>(1949)은 생전에 출판되었고 <제주도수필>(1968), <제주도곤충상>(1971), <제주도자료집>(1971)은 누이 석주선이 유고집으로 펴냈다. 제주도총서는 한국에서 외국의 영향으로 지역연구가 시작되기 20년 앞서 거의 한 사람의 손으로 1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룩한 자생적 지역학의 성과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그 자신의 말대로 “출판과 동시에 고전”으로 되었다. 1948년 4.3사건때 중산간마을의 95퍼센트가 초토화되었기 때문이다. 석주명이 개척한 제주학은 진성기(1962), 전경수(1998, 2001), 홍순만(2000), 강영봉(2002), 최낙진(2007) 등이 평가했고, 특히 학회장 윤용택(2011)은 그 의의를 음미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심각한 좌절감에서 민족의 갈 길을 고민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자들은 1924년 발명학회를 결성했고, 1933년에는 과학대중화를 위해 잡지 <科學朝鮮>을 창간했다. 1930년대 중반에 김용관, 안동혁 등이 주도한 과학운동은 이인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동참했고 국민의 반응이 뜨거웠다. 1934년에는 과학대이가 선포되어 온 나라가 들끓었다. 이 운동의 중심이 경성고등공업학교 출신들이었고 석주명이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 이미 나비연구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시기에 조선학 또는 국학운동도 활발했다. 석주명은 일찍부터 정인보, 최남선, 홍기문, 김태준, 조운제 등과 교류가 있었다. 그의 ‘조선적 생물학’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주명의 인문학자들과의 관계는 국학에서 큰 몫을 하게 된 해방후 더욱 강화된다. 석주명은 라디오의 천문만답(千問萬答)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들과 어울렸다. 최현배의 저서 <글자의 혁명>서평도 썼다. 과학박물관에서 일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과학의 대중화에 적극적이어서 어린 이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나도 그 어린이의 한 사람이었다.

석주명은 뛰어난 과학자였다. 일제 강점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선사람은 50명쯤 된다(일본 의학박사 제외). 그 가운데는 이태규, 리승기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도 나왔지만 많은 박사들이 계속 연구를 이어가지 못했다. 석주명은 4년제대학을 다니지 않았는데도 세계가 인정한 업적을 냈다. 더구나 그는 자연과학의 연장선상에서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를 했다. 석주명이 한국전쟁의 와중에 42살 한창때 삶을 마감한 것은 애통한 일이다. 또 하나의 유망한 물리학자 이휘소(Benjamin Lee, 1935-77)도 같은 나이에 비명에 갔다. 나는 석주명의 일생을 보면서 18세기의 화학자 라부아지에(Antoine Laurent Lavoisier, 1743-94)를 떠올린다. 라부아지에는 파리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한때 희곡작가가 되려 했다. 그는 천문학 강의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기상학, 지질학, 광물학을 거쳐 화학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22살 때 과학아카데미의 현상논문에 응모해 왕의 특별상을 받았고 25살에 회원이 되었다. 그는 과학에서는 혁명가였으나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였다.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고 자코뱅이 집권하자 라부아지에는 혁명재판에 회부되었고 터무니없는 죄목을 쓰고 콩코르드광장에서 기요틴형에 처해졌다. 51살이었다. 짧은 생애에 불꽃을 튀긴 두 사람은 닮은 데가 많았다. 라부아지처럼 불운했던 석주명도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윤용택 제주학회장은 막 나온 역저의 제목을 <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이라 붙였다. 참으로 석주명은 현대에는 아주 드문 르네상스인이었다. 기원전 7세기 과학 또는 자연철학이 출발할 때,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 알려졌지만 그 때의 mathematike는 천문학, 음악, 의학을 포함했다. 그는 또한 영혼의 신비적 구원을 추구한 오르페우스 밀교의 사제였다. 기원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동물학, 물리학, 천문학, 정치학, 문학을 다 했다.

르네상스 때의 레오나르도(Leonardo da Vinci)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를 겸했다. 같은 때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는 크라쿠프에서 인문학과 천문학을 공부한 다음 이탈리아에 유학해 로마, 볼로냐, 파도바에서 법학, 의학을 배우고 페라라에서 교회법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다음에는 성당의 행정을 맡아 보고 숙부의 주치의의를 했으며 화폐개혁에도 한 몫 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혁명을 일으켰다.

18세기에 뉴턴의 기계적 철학에 항거한 낭만주의운동을 주도한 문인 괴테(Johann Wolfgang Goethe)는 식물학, 해부학, 광물학, 기상학에 일가를 이룬 과학자였다. 20세기의 마지막 르네상스인으로 불린 니덤(Joseph Needham, 1900- 95)은 세계적인 생화학자, 발생화학자였지만 철학자, 역사학자였으며 후반생에는 중국과학사에 전력투구해 30권이 넘는 저작 <중국의 과학과

문명>.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7 vols.)을 남겼다.

“Habe nun ach! Philosophie,
Juristerei und Medizin
Und leiderauch Theologie
Durch auchstudiert, mit heißem Bemühn.
.....”

(아,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심지어는 신학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철저히 공부하였다.
.....)

파우스트의 독백을 꺼내 읽어 보며 석주명이 일어 번역으로라도 <파우스트>를 틀림없이 읽었으리라 생각해 본다. 과학자는 외골수가 대부분이다. 석주명은 극히 드문 예외였다. 석주명은 대학에 열심한 일 없는 과학자인데도 10년 동안에 백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고 일본과 서양학계에서도 인정한 뛰어난 과학자였다. 한국에서는 요즘 융합, 복합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석주명이 특히 주목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姜榮峯, 濟州語와 石宙明, <耽羅文化>, 22號, 2002, 1-13.
- 곽종훈, 석주명,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La Laterno Azia, Aprilo, 2005.
- 金三守, 韓國 에스페란토運動史, 淑明女子大學校出版部, 1976.
-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石宙明의 나비분류학,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石宙明의 나비분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1(2), 1999, 157-193.
- 문만용, 석주명, 2008년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대상자 공적 조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8.
- 石宙善, 나비같이 왔다 가신 오빠, <新天地>, 1954.5.
- 송상용, 석주명과 나비, <과학재단소식>. 제82호, 1992, 11, 22.
- 송상용, 토종과학 자석주명, <한겨레>, 2008.11.12.
- 송상용, 나비박사 석주명, <과학자들-피타고라스에서 이태규까지>, 자유아카데미, 2018.
- 윤용택,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 <耽羅文化>, 39호, 2011, 215-263.
- 윤용택, <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 나비박사 석주명의 삶과 사상>, 궁리, 2018.
-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나비박사석주명評傳>, 東泉社, 1985 ;아카데미서적, 1989.
- 이병철, <석주명평전>, 그물코, 2002.
- 이병철, 나비박사 석주명의 생애와 학문, <과학사상>, 1997 여름, 169-187.

전경수, 지역연구로서 濟州學의 방법과 전망, <濟州島研究>, 1998.

전경수, 石宙明의 學問世界: 나비학과 에스페란토, 그리고 濟州學, <민속학연구>, 8, 2001, 7-21.

진성기, <제주도학: 제1집 개관편>, 인간사, 1962.

최낙진, 석주명의 ‘제주도총서(濟州島叢書)’에 관한 연구, <韓國出版學研究>, 제52호, 2007, 305-333.

紫谷篤弘, 石宙明, <やどりが>, 第125號, 1985, 12-15.

紫谷篤弘, 再說石宙明, <やどりが>, 第128號, 1987, 12-19.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1940.

Yoon Hee (Suk) Kwon, MY FATHER, 닳고 싶은 과학자 “나비박사 석주명의 Life Story” 포럼, 국립과천과학관, 2009. 4. 18, 13-23.